

# '바다 이야기' 게이트로 번지나 인수 합병·심의 통과 등 의혹 눈덩이



'바다 이야기'의 인기를 보여주듯 광주의 한 성인오락실 간판과 출입문, 벽면 등 외부 전면에 '바다 이야기' 관련 포스터로 도배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인 '바다 이야기'가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43)씨가 '바다 이야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땅에 추락할 수 밖에 없다.

## 청와대 "노지원씨 무관"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노지원씨가 '바다 이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2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조카는 바다 이야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 말라"고 말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정수석실에서 수차례 노씨에게 우전시스텍 대표이사사를 맡지 말 것을 설득한 것은 물론, 스톡옵션도 포기하도록 했으며 우전시스텍 대표에게도 노씨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노씨는 IT 전문가로서 우전시스텍에서 통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뿐이며 ▲지코프라이임(바다 이야기 판매회사)이 우전시스텍을 인수한 것은 양사 사주간의 문제로 노씨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

대목이다.

'바다 이야기' 제작·유통업체인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이임의 지분관계도 의문투성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치인 2~3명이 성인오락기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지역 여론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의 심의 과정을 통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유진통 전 문화부 차관의 사임 논란과 관련, 권력 위압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바다 이야기'와 관련된 의혹은 추후 정계개편 및 대선 정국에서도 민감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계개편에 앞서 이번 '바다 이야기' 파문은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일로 추후 정국의 낙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바다 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성인게임에 대한 예비조사인 현장조사를 21일부터 착수키로 했으며, 검찰의 전면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검찰 수사 직전 퇴사

그러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노씨가 지코프라이임과의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노씨가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뒤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시작될 무렵 퇴사한 것도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스톡옵션 10만주의 경우 3년 보유, 2년 연속 근무해야 가능한 것으로 내년 3월26일부터 행사가 가능하지만 행사 가격이 820원으로 현재 가격(1천770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돼 특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 정치인 2~3명 연관설

'바다 이야기'와 관련된 의혹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부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만나 "내 집권 시인할으로써, 이번 의혹은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에서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 '바다 이야기'란? 2004년 12월 처음 등

장해 작년 중반 이후 전국적인 붐을 일으킨 게임이다. 슬롯머신과 같이 돌아가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릴 게임(reel game)의 일종. 1만원권 지폐를 투입기에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0점(100원)점씩 소진되며 배팅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빨리 소진되고,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점수도 비례해서 커진다. 업계에서는 '황금성', '바다 이야기', '오션 파라다이스'를 소위 성인용 게임의 '빅(big) 3'로 부르는데 최근에는 '바다 이야기'를 최고로 간주하는 데 의견이 없다.

## 작고한 盧대통령 큰형 아들...2003년 KT서 우전시스텍으로 옮겨

### ■노지원씨는 누구?

'바다 이야기' 의혹 연루설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노지원(43·사진)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작고한 큰형인 영현씨의 둘째 아들이다. 노 대통령 큰형인 영현씨는 노 대통령의 인격 형성 등 성장 과정

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영현씨는 197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부친 사망 당시 9살이었던 지원씨는 작은 아버지인 건평씨 밑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금오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0년 9월 KT에 입사, 2003년 10월 퇴직할 때까지 13년간 근무했다. 그가 KT를 떠난 것은 200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의 주선으로 코스타 등록업체인 우전시스텍 이명곤 대표이사를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 기아차 광주공장 파업 한달

16번째 이어온 기아자동차의 파업이 올해도 한달을 넘기면서 차량생산 손실과 함께 내수·수출 판매 등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노사가 하루빨리 공장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일 안해도 매년 임금 보전

### ■되풀이 파업 왜

자동차 파업이 매년 정례화되는 데는 조립산업이라는 업계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는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곧바로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노조측 입장에서 보면 파업효과가 커 파업을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경영진의 '과주 기식' 대응과 '무노동·무임금원칙 부재'도 되풀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생산손실은 만회하지 못하지만, 기아차는 파업이 끝나면 각종 성과급·보상금으로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대부분 보전해줬다"면서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파업강도를 더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채용비리사건을 겪은 광주공장 노조의 경우 대국민 사회성명까지 발표하며 도덕성 회복을 다짐했으나,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계 인사들은 "광주에서 기아차살리기·사주 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조원들은 '나 몰라라'식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체질화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 "적자 상황 노조 요구 무리"

### ■을 협상 장기화 왜

임금협상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임금협상과 함께 단체협상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와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8일 16차 본교섭에서 올해 111개 협상조항 가운데 63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48개 조항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다. 미합의 조항 중 쟁점분야는 크게 임금인상안과 노조의 발원권 강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임금에 대해 노조측은 기본급 1만 6천221원(기본급 대비 7.8%) 인상과

성과급 300% 지급 및 라인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250억원 규모의 복지기금 출연도 요구사항에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2·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정사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선임 및 조합대표자 이사회 참여와 발원권 보장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해외공장 신설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노사합의 ▲자본변동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합과 합의 ▲조합원 휴게시간 연장 등으

### KIA 기아차 노조 요구 사항

구분	내용
임금 부분	• 기본급 10만 6천221원(기본급 대비 7.8%) 인상
	• 성과급 300% 지급/라인수당 인상
	• 복지기금 250억원 출연요구
단체 부분	• 조합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선임
	• 조합 대표자 이사회 참여 및 발원권 보장
	•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 고용에 영향 미치는 사항 노사합의 요구
기타	• 기술연수 및 지원 노사합의 요구
	• 자본변동시 계획단계부터 조합과 합의
	• 조합 활동시간 연장, 휴게시간 연장

※ 회사측은 주요 쟁점사항에 교섭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

로 대부분이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광주공장 6,800대 생산차질

### ■눈덩이 파업 손실

지난 18일까지 한달동안 부분파업으로 기아차 전체는 2만2천여대의 생산차질과 3천300억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광주공장은 6천800여대의 생산차질, 1천5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247개의 지역내 1·2·3차 협력업체의 피해 252억까지 합치면 1천300억원에 육박한다.

환율하락과 내수부진 등으로 올 2·4 분기에 1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광주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3·4

분기 영업실적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 지난 7월 기아차 판매실적은 7만 8천620대로 6월 12만3천464대에 비해 36.3% 감소했다. 내수는 2만1천82대로 12.2% 감소한 반면, 수출은 5만7천538대로 42.1%나 줄어들었다.

기아차와 현대차의 파업손실은 우리나라 전체 파업손실의 80%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전국 287개 업체 가운데 제조업체 15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1조2천899억원, 수출차질액은 8억2천900

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기아·현대차의 생산과 수출차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2%와 82.8%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연봉 5천만원을 넘는 직원들이 10만원을 더 받기 위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파업은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면서 "생산성은 일본의 3분의 2에 불과한데도 미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LOUIS VUITTON